

보도일시 (인터넷) 배포 즉시  
(지면) 배포 즉시

배포 2026.7.7.(화)

## '동해신항 석탄부두' 첫 삽...2031년 준공 목표로 본격 착공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동해권 시멘트 제조, 화력발전소 운영 및 국가기반 산업 원자재(석탄)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6월 착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석탄부두 건설공사는 동해항 석탄 수요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것으로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.

새롭게 석탄부두가 개장되면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·체화를 감소시키고, 인근 발전소 및 산업단지에 원활한 석탄 공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각종 부대시설 활성화와 동해신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서 성장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동해신항 석탄부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	책임자	과 장 김 연 수 (033-520-6251)
		담당자	주무관 배 동 성 (033-520-6253)